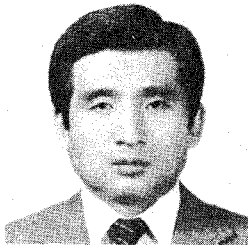




자연환경의 어려운 여건 아래 농민과 전농산
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분투 노력한 결과 제 5
공화국 수립 이후 연속 5년의 풍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증산의욕 고취로 풍년농사 이룩”

올해 식량증산은
이렇게 추진할터.



농수산부
미산과장
洪 仁 植

지난 한해 동안의 농사일을 조
용히 돌이켜보면 잦은비와 태풍
이 전례없이 몰아쳤던 것이 지금
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모내
기때인 4월과 5월의 강우가 순
조로워 모내기때 물걱정없이 '84
년도보다 5일정도 앞당겨 특수
2모작을 제외하고 모내기 끝마
무리를 지을수 있었습니다.

모내기 면적은 '84년도보다 8
천ha가 더 많은 1,233천ha 로서
전국이래 제일 많이 심은 면적

이 되겠습니다.

모내기때 평균기온이 약간 떨어지고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어린모의 착근이 다소 지연되는등의 생육상 불리한 여건이 되었으며, 뿐만아니라 6월 22일부터 6월28일까지 평균 211mm의 강우가 있었고 지역에 따라 최고 강우량은 732mm가 되어 전남고흥군 해창만 일대에 경북, 경남, 전북 등지에서 의연모를 보내어 모내기를 재차하는 힘든 어려움도 있었으며 9월 18일~19일양 일간의 집중호우,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잇을수 없는것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20mm나 되는 집중호우로 경기도, 충남 일부지역에 배놓은 벼가 무려 1,529ha 분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연속 5년간 풍년 이룩

더욱이 5차례의 태풍은 전국의 전 농수산공무원 뿐만아니라 전 국민을 긴장속에 몰아넣어 비상사태 못지않은 비상근무를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어려운 여건아래 농민과 전 농산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증산의 염원을 잠

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분투 노력한 결과 제 5 공화국수립 이후 연속 5년의 풍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적으로 농사일에 온국민의 참여로 모내기때 2,831천명, 그리고 벼베기때와 벼벼 묶어세우기의 지원인력은 4,848천명으로 전례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병충해는 조기에 정밀예찰과 사전방제로 논밭두렁 불태우기 94천ha, 묘판규산실비로 57천톤, 못자리 입제농약 901톤 등을 사용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긴급 병충해 방제령을 발동하여 민방위대등 가용인력과 관보유방제기대를 총동원하여 방제에 임하였으며, 특히 국지적으로 산간부에는 목도열병과 저온성해충, 서남해안지대에는 벼멸구와 백엽고병, 평야부에는 문고병과 이화명충 방제에 역점을 두어 병충해방제에 73억 원을 투입하여 그 피해극소화에 총력을 경주하였던바 목도열병 없는 농사를 처음 지었습니다.

대단위 과학영농단지를 시군당 2개소씩(1개소당 20ha) 모두 373개소를 설치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고단수평준화에 주력하였던 결과 평야지 650kg, 중산간부 600kg 기준 단수를 넘는 지

역이 44개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당 모심는 포기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단위당 절

대이삭수 확보에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86년도 식량증산계획 청사진

'86년도 식량증산 총 계획량
은 대과맥 그리고 소맥등을 제
외하고 모두 45,449천석으로 곡

종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
습니다.

〈표 1〉 '86 식량증산 계획

	면 적	단 수	생 산 량	
			천 톤	천 석
합 계	1,576 천ha	kg	6,465	45,449
미 곡	1,215	451	5,475	38,000
맥 주 보 리	-	-	112	812
두 류	245 (200)	130 (136)	319 (272)	2,332 (2,015)
서 류 (감 자)	70 (32)	569 (338)	397 (108)	3,105 (885)
잡 곡 (옥 수 수)	46 (31)	354 (474)	162 (145)	1,200 (1,077)

※ 맥주 보리는 수매계획물량임.

영농취약지 중점관리
고단수 평준화 기할터

금년도 식량증산 추진계획은
작년도 영농추진상의 문제점을
표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 영농취약지를 중점관리

하여 고단수 평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영농취약지는 재해 상승지
55,693ha와 특수 2모작등 영농
상의 취약지 102,987ha, 모두
158,680ha로서 그 내역별 분포
상황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표 2〉 재해상습지 및 영농취약지 현황

		지구수(농가수)	면적
		個所 戶	ha
재해상습지	합계	15,482 (59,015)	158,680
	소계	8,899	55,693
	한해	3,424	15,044
	풍수해	1,718	20,532
	냉해	1,002	7,387
영농취약지	병충해	2,755	12,730
	소계	6,583 (59,015)	102,987
	특수 2 모작	2,016	16,504
	부재지주	(20,214)	9,917
	관외지주	(38,801)	16,991
	늦모내기	1,072	11,378
	늦벼베기	1,155	14,821
	뽕벼밭아말리기	2,259	32,505
기타	81	871	

이들 취약지는 지역별 취약요소별 특별영농대책을 '85. 12. 1 ~ '86. 1. 31까지 행정, 지도, 농협, 농조등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농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영농을 유도하고 취약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타사업에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행정, 지도, 각 1명씩 지도책임자를 배치 하고 농협과 농조는 측면지원을 적극적으로하여 취약지 영농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둘째 : 범시 기호품종 공급량 부족과 수발아로인한 농가자체 우량종자확보가 지난하여 보급종생산을 '85년도에 6,220톤에서 금년도에는 8,500톤으로 20%를 더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된 종자는 수해지구에 우선 공급 조치하고 시범모산이나 증식포산에서 생산된 종자는 양특에서 구매하여 별적하였다가 부족종자에 대비하고자 하며 수발아된 종자는 정도에 따라 증량과종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 평당 모심는 포기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절대이삭수 확보가 지난한 실정인바 평당포기수와 이삭수 확보상황은 (표 3)과 같습니다.

〈표 3〉

	'83	'84	'85
평당 포기수	78.0	77.2	76.9
포기당 이삭수	19.2	18.6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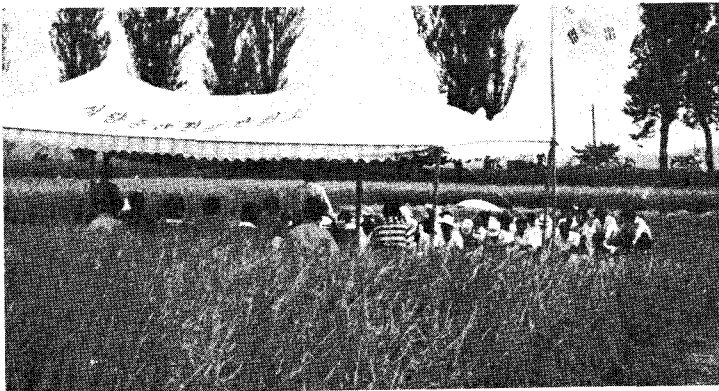
매년 이렇게 포기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임대모내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밀작업을 하지 않아 결주가 생기고 기계 이앙시 이앙작업을 신속히 하기위하여 이앙기의 재식주수를 낮게 잡아 이앙하는 등의 원인이 있어 지방비를 지원하여 규격못줄 공급을 확대하고 모내기때에는 주인이 못줄잡아주기 운동을 제도

하고 도급모내기과 청부모내기 때 적정주수확보 협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며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 논보리지대를 위시하여 2모작 재배지역에 적기 모내기가 부진한 실정이므로 늦모내기 대상 568,208ha에 대하여 사전 농가를 조사하여 알작물 수확기 조절로 조기모내기유도, 수리불안전담 논물가두기 적극실천, 그리고 경운기, 이앙기 총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도를 제고시켜 적기모내기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동원 계획 수립하여
적기모내기 총력 경주

다섯째 : 일반벼 재배 증가에



◇농수산부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국지적 방제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따른 병충해방제 및 특수병해충 발생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병충해 초기전염원 제거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여 키다리병과 벼이삭선충 방제에 주력하고, 들벌, 부락단위로 병충해 기본동시공동방제를 실시하며, 흑조위축병 발생지역에는 칩투성 입제 농약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실정을 감안한 국지적 방제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밀 병충해 예찰 실시 신속통보로 방제와 연결

여섯째 : 병충해 예찰 결과가 방제와 신속히 연결되지 않아 사전 적기방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예찰결과를 당일에 유관기관과 농가에 통보토록 조치하고 관찰포의 예찰결과와 지역 순회 예찰결과를 종합하여 방제 촉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여 병충해 발생표본을 휴대하여 발생현상을 보여 주면서 대농민 밀착 지도를 해 나갈 것이며, 공동 및 용역방제단 33천개 방제단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책임방제를 실시하고 방제실시여부를 개략도에 표시하여 지도원이 지참지도를 하고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재해 대책을 적극강구

일곱째 : 금년도에는 헬리 혜성과 화산폭발 등으로 기상이변이 우려되고 있어 기상 이변에 대비한 재해대책영농을 적극 강구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냉해대비는 그 우려지역 53.6천ha에 대하여 냉해에 강하고 숙기가 빠른 품종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지대별 모내기시한 준수로 후기냉해를 대처해 나가고 냉해전용 복합비료 공급을 확대하여 질소질비료 과용을 억제하고 인산, 가리질비료를 증시함은 물론, 냉해 우려지역에 객토, 벗짚갈기등 농토배양에 중점을 두고 냉수관개담의 수온상승시설을 확대 설치코자 하며, 기계이앙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노리고 가뭄대비는 364천ha의 천수담에 논물가두기와 모든 저수지에 물넘이 돌우기로 저수량을 증대하고 소형관정등 용수원의 조기개발과 영농기전 점점정비를 철저히 하여 농사철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고자 합니다.

풍수해대책은 상습지 20,500ha에 대해서는 내침수성 품종과

백엽고병에 강한 품종을 집중공급하고 농토배양과 시비법 개선으로 건전생육을 유도하며 주요땀, 저수지수위조절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 잦은 태풍과 강우로 도복피해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품위가 떨어지고 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상습지역에는 시비조절 지도를 강화하여 질소질비료는 20~30% 감비하고 가리질비료는 20~30% 더주는 지도와 도복대책과 연계하여 문고병, 벼멸구방제를 철저히 하고 쓰러진 벼는 조기에 일으켜 세우기 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리생산 자율적 추진 증산 의욕 고취시킴터

아홉째 : 습답 및 중점토답 등 물빠짐이 잘 안되는 곳에 벼베기를 하여 깔아서 말리는 사례가 많아서 배수불량답 162,311

ha를 위시하여 벼베 작은단 묶어 세우기 지역별, 시대별, 토성별로 설정하여 지도를 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시 '85년도 벼 베가 떠내려가는 각종 사진을 통한 실감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콤바인 수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열째 : 쌀 대단위 과학영농 단지를 시군당 3개소, 개소당 20ha 이상 설치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리생산은 계속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맥주보리는 비계약 생산이 증가하여 공급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매물량 중심으로 계약 재배를 추진하며 콩, 감자, 옥수수 등 기타 전작물에 대하여 품종개량, 농가출하 수매조정등을 통한 증산의욕을 고취시켜 금년에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6년 연속 풍년농사로 주곡자급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자 합니다.